

2005 6월호 제363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6월호

발행일 : 2005. 6.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5
통권 제363호 6

생각해봅시다	4	주부는 집의 리더이다/김진애
실태조사	6	생활필수품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조사
소비자경보	9	“사기성 인터넷 쇼핑물” 조심하세요!
고발사례	10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정보	12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알아봅시다	14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에 무방비
에너지절약가이드	16	가전제품 사용의 지혜
에너지절약/체험수기	17	작은 실천이 큰 물결이 되어
금융길라잡이	18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전자금융거래
환경정보	20	환경마크 부착된 친환경상품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하자
세금절약가이드	22	소득공제대상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건강가이드	23	머리 좋아지는 비결
소비자뉴스	24	차창 밖 손 내밀다 다치면 본인 책임
식품뉴스	26	국내 라면들, 나트륨 과다 “너무 짜다”
여성뉴스	28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수필	30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김영희
음식이야기	32	색깔로 먹는다-엘로푸드
가정요리	34	삼복더위, 담백한 닭요리로 이겨내자
의료정보	36	보험료 납부에서 체납까지 궁금증 풀어드려요
북한뉴스	37	북한의 민속명절-단오
문화산책	38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	39	대자연 속의 조용한 호흡, 산사로 가는 길
지부소식	40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효율적인 주택 물 관리와 수질 향상을 위한 제안회의

<표지사진 : 수자원 보호를 위한 물사랑 캠페인(전라남도지부, 05. 5. 20), 소비자제안회의-유통업계의 CS기구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대전광역시지부, 05. 5. 26)>



김진애
건축가, 서울포럼 대표

주부는 집의 리더이다

집에서는 주부가 리더다. 이른바 공식적 집주인이 아직도 많은 경우 남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역시 주부가 아닐 수 없다. 소유권보다 운영권이, 경제권보다 재정권이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간을 많이 쓸수록 또한 수고를 많이 할수록 더욱 큰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 순리다.

주부들은 리더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각별한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 '좋은 리더십'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끝없는 집안 살림에도 덜 지치게 되고 매일 똑같은 듯 보이는 살림도 의외로 멋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집에서의 리더 역할은 사실 어떤 리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가족 역시 사람이 모여 있는 하나의 조직임에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를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커지는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의 강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첫째, 리더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공유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하며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 거품 많은 세상에서 아파트 거품, 자동차 거품, 교육 거품, 레저 거품 등 온갖 소비 거품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수 넘치는 허영을 대신할 수 있는 삶의 뜻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미래의 분수를

키우는 비전도 같이 해야 함은 물론이다. 거품만 아니라면 분수를 키우는 일이야 말로 바로 비전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의 분수를 지키고 분수를 키우자.

둘째, 좋은 리더는 권한 이양을 철저하게 하는 자율형 리더다. 가장 나쁜 리더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멍부형 리더' 라는 말처럼 모든 일을 자기가 끌어안고 계속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버티면 결국은 문제를 키운다. 아이들이 각자 해야 할 일, 남편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잔소리만 매일 해 대면서 결국 못 보겠다 싶어서 자신이 일해 버리면 결국은 기강이 안서고 가족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없다. 이렇게 권한 이양을 하면서도 곳곳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리더는 사자스러워야 할 때는 사자답고 여우같아야 할 때는 여우같다. 이 말은 그 유명한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인데 아주 그럴 듯하지 않은가? 무서울 때는 화산처럼 무섭고 친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살가워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여우같은 아내' 라는 통설 속의 아내로서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자 같은 주부' 역할도 마다하지 말자. 그만큼 할 말은 하고, 책임을 물을 때는 무섭게 묻고, 아낄 때는 모질게 아끼고, 쓸 때는 너그럽게 쓰고, 결단할 때는 확실하게 결단하자.

넷째, 리더는 자신을 아낄 줄 안다. 리더가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은 아니며 받아야 할 대접을 요구할 줄 알아야 권위도 선다. 요새 유행하는 광고 카피처럼 '주부가 건강해야 미래의 꿈도 이루어진다' 는 말은 진실이다. 주부(또한 엄마이자 아내)를 아무 때나 마구 부러 먹으려 드는 주변의 압력에 당당하게 대해야 한다. 그만큼 리더는 때를 안다. 나셔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안다는 뜻이다.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나서면 오히려 리더십이 흔들린다.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그만큼 인정도 받는 것이다.

주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의 네 가지 외에도 집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리스트는 훨씬 더 많다. 자신만의 리더십 노하우를 가지시기 바란다.

물론 남편의 리더십도 존중해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부를 서로 '정상'으로 인정해주자. '정상회담'을 하는 격으로 집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해주자. 존중할수록 리더십은 커진다. ■

생활필수품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조사

- 판매점별로 판매가격 차이나 소비자들 꼼꼼히 가격 비교해 봐야 -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가 9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표시의무 품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전주부교실은 지난 4월 20일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슈퍼를 직접 찾아가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격 비교와 단위가격 표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미흡·왜곡된 가격정보 제공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생활필수품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상품자체나 진열대 등에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판매자 자신이 표시하는 제도로서 판매업자에게 일일이 상품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쉽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따라 또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단위가격과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유통업체별 가격비교

가. 백화점별 가격비교: 세이백화점이 저렴한 품목 가장 많고, 콤팩트슈가 가격차 가장 심해

백화점 3곳의 가격 비교한 결과 세이백화점이 19개 품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갤러리아타임월드는 17개 품목이, 롯데백화점은 11개 품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산품의 경우 콤팩트슈가 56.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요구르트(38.9%), 카레(30.2%), 고추장(30%) 순이었다.

나. 대형할인매장별 가격비교: 홈플러스(둔산점)가 저렴한 품목 가장 많아

대형할인매장 11곳의 가격 비교한 결과, 홈플러스(둔산점)가 저렴한 품목이 가장 많은것(14개 품목)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홈플러스(용전점, 10개 품목), 대한통운마트, 까르푸(유성점, 8개 품목), 롯데마트(7개 품목), 까르푸(둔산점), 까르푸(문화점), 이마트는 6개 품목이, 동방마트는 5개 품목이, 월마트, 세이브존은 4개 품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산품의 경우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품

<표 1-1> 대형할인매장별 가격비교

업 체	품목수	저렴한품목수	
		실수	백분율
홈플러스(둔산점)	47	14	30%
까르푸(둔산점)	37	6	16%
월마트(대전점)	43	4	9%
까르푸(유성점)	38	8	21%
홈플러스(용전점)	50	10	20%
대한통운마트	47	8	17%
세이브존	43	4	9%
동방마트	47	5	11%
이마트	43	6	14%
까르푸(문화점)	44	6	14%
롯데마트(진잠점)	47	7	15%

목이 생수가 150%로 나타났고, 식용유(69.3%), 바디클렌저(60%), 섬유유연제(47.4%)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형슈퍼: 하나로마트가 저렴한 품목 많고, 생수 가격차가 가장 심해

대형슈퍼 5곳을 가격 비교한 결과 하나로마트(안영동, 19개 품목)가 가장 저렴한 품목이 많았으며 역전공판장(13개 품목), 비레스토아(10개 품목), 노은시장(9개 품목), 롯데슈퍼(엑스포점, 3개 품목)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산품의 경우 가장 많은 가격차를 보인 품목으로는 생수가 92.3%로 가장 컸으며, 콤팩트슈(84.4%), 녹차(77.1%), 카레(70.5%)로 나타났다.

2. 가장 저렴한 매장별 품목 비교

백화점, 할인매장, 대형슈퍼를 비교한 결과 품목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곳은 다음과 같다. 라면은 홈플러스 둔산점이 43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짜파게티는 세이백화점(470

원), 생우동은 대한통운마트(3,700원), 카레는 까르푸(둔산, 유성, 문화점), 카레는 이마트(860원), 햄은 동방마트(2,160원)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우유는 역전공판장과 노은시장이 1,700원을 받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1,650원을 받고 있었다. 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표 1-2>

3. 유통업체별 단위가격 표시(의무표시품목 중 19개 품목조사)

환산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대형슈퍼는 단위가격표시 미흡한 곳 많아

유통업체의 단위가격을 환산한 결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환산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표시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롯데백화점은 조사대상 18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세이백화점은 조사품목 19개 중 4개 품목 미표시,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조사품목 18개 중 2개 품목이 미표시 되어 있

<표 1-2> 저렴한 매장별 품목 비교

품 목	백 화 점		대형할인마트		시 장	
	업 체	가 격	업 체	가 격	업 체	가 격
라면	세이백화점	470	홈플러스둔산점	430	비레스토아 역전공판장	450
짜파게티	세이백화점	470	까르푸(둔산,유성,문화)	530		
생우동	세이백화점	3,750	대한통운마트	3,700	역전공판장	3,800
카레	세이백화점	960	까르푸(둔산,유성,문화) 이마트	860	하나로마트	880
햄	갤러리아 타임월드	2,200	동방마트	2,160	노은시장	2,300
우유					역전공판장 노은시장	1,700
주스	갤러리아 타임월드	1,680	월마트	1,670	역전공판장	1,400
생수	세이백화점	200	까르푸유성점	140	하나로마트	260
소주	세이백화점	850	까르푸(둔산,유성,문화)	780	하나로마트	890
커피	롯데백화점	8,800	대한통운마트	7,490	하나로마트	7,380

〈표 1-3〉 대형할인매장별 단위가격표시

업 체	품목수	단위가격표시품목	
		표시	백분율
홈플러스(둔산점)	18	18	100%
까르푸(둔산점)	13	0	0%
월마트(대전점)	17	14	82%
까르푸(유성점)	14	14	100%
홈플러스(용전점)	19	19	100%
대한통운마트	19	5	26%
세이브존	17	12	71%
동방마트	19	11	58%
이마트	19	18	95%
까르푸(문화점)	15	14	93%
롯데마트(진잠점)	19	17	89%

었다. 백화점 3곳 중에서는 갤러리아타임월드 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었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대한통운마트가 조사 품목 19개 중 14개 품목이 미표시 되어 있었고, 까르푸(둔산점) 조사품목 13개 중 13개가 미표시, 동방마트가 조사품목 19개 중 8개 품목 미표시 되어 있었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홈플러스(둔산점 조사 품목 18개), 홈플러스(용전점, 조사품목 19개), 까르푸(유성점, 조사품목 14개))는 조사대상 단위가격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대형슈퍼의 경우 하나로마트(안영동)는 조사품목 19개 중 1개가 미표시, 노은시장은 조사 품목 19개 중 19개 모두 미표시, 역전공판장도·18개 조사품목 모두 미표시 되어 있었고, 비레스토아도 조사품목 16개 중 16개가 모두 미표시 되어 있었으며 롯데슈퍼(엑스포점)만이 17개 중 1개가 미표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형슈퍼의 경우에는 롯데슈퍼가 단위가격표시가 잘 표시되어 있었다.

4. 각국의 단위가격표시제 현황

미국의 경우에는 단위가격 및 품목의 판매가격이 승인대상이 되는 모든 소매시설이 49개 품목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일본은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공설소매장은 20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에 해당되며 가공식품 52개와, 일용잡화 19개 등 총 91개 품목이 표시 대상이다.

영국은 수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은 소매업체가 단위가격 표시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9월 3일 개정하여 21개 품목에서 가공식품 20개, 일용잡화 13개, 총 33개 품목의 단위가격표시품목이 지정되었으며 규모는 여전히 3000평방미터의 건물규모를 정하고 있어 일부 대형슈퍼는 단위가격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시 어려움을 안고 있다.

5. 결 론

단위가격표시제는 수량,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표시의무 대상이 21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12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단위가 고려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판매가격표시제도와 단위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주권 강화 및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격표시제의 선진화를 조속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판매점별로 판매가격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므로 공공기관, 물가정보기관, 인터넷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검색하여 비교,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지부〉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조심하세요!

최근 ‘노트북 50% 할인판매’, ‘백화점상품권 50% 할인’ 등 고가의 컴퓨터 제품,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대폭 할인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소비원·서울보증보험 등 마크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그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 피해 유형 및 사례 ▣

●● 피해유형 ●●

- ① 대부분 스팸 메일 등을 통해 피해사이트로 접근을 유도하고 있음.
- ② 기념 또는 경품행사임을 강조하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함.
- ③ 현금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좌가 자주 변경되기도 함.
- ④ 사업자정보가 거짓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서울보증보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마크를 도용하고 있음.
- ⑤ 제품 구매고객들로부터 송금만 받고, 제품을 배달하지 않으며 철회·환불해주지 않음.

●● 피해사례 ●●

K씨는 ‘새단장 기념 노트북 50% 할인 판매’라는 내용의 네이버 메일을 받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 모델 3대를 구입해 계좌 송금했다. 송금 후 세무계산서와 배송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전화를 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불성실하여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사이트에 서울보증보험 가입 표시가 있어 확인해보니 가입된 사실이 없었으며, 관련 피해사례를 인터넷에서 찾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기 사이트 조심 경고」를 보고 00시스템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K씨는 곧바로 00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벌써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예방법 ▣

00시스템의 경우 도메인등록 및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경우

에는 사업자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사이트에 공지를 띄우거나 사이트 폐쇄 등 예방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 서버를 둔 경우 서울특별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관련 사이트에 위법한 사업자임을 공지하여 소비자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① 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관련 쇼핑몰 사이트가 의심스러우면 해당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사업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
- ② 스팸 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가입권유, 무료 또는 파격세일 광고는 각별히 주의하여 쇼핑한다.
- ③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상세히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
- ④ 분쟁 발생에 대비,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주문번호, 영수증, 상품거래명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하여 보관한다.
- ⑤ 공정위, 서울보증보험,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인증마크가 홈페이지 화면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신고한다.

▣ 위법사례 신고 및 상담 ▣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 503-2387
- 서울특별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 ☎ 3707-8360

소비자의 소리

방카슈랑스 생명보험 가입하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미교부로 해약 현금 요청

내용 김태진(경북 구미시 남통동) 씨는 2005년 1월 19일 조흥은행에서 전자어음을 현금화 하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신한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 향후 대출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여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며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도 받지 못했고 매월 불입액이 100만원이며 5년납이었다. 10년 후 연금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였으나 약관도 미교부한 상태에서 월 불입액이 많음에도 신뢰성이 없어 해약요청을 하였으나 해지시 기 납입한 보험금은 환급이 안된다 하여 본회에 구제 요청 하였다.

처리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약관(상품요약서) 및 청약서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직원(종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이유로 환불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본회와의 통화가 이루어진 후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계약약관을 확인한 바 은행 창구에서 담당직원이 향후 대출이용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요내용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은 점과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주요내용을 미고지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500만원 전액을 환불요구하여 모두 환불조치케 하였다.

청약 철회 내용증명 접수하고도 처리 외면하는 방문판매 업체 신고

내용 송지연(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씨는 2005년 5월 16일 집으로 방문한 삼성출판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아동용 서적을 계약하였다.

계약 당시 어린 자녀가 계속 울고 있는데도 영업사원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계약을 종용하여 충동구매 계약을 한 것 같아 영업사원이 돌아간 후 바로 해지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하였다. 책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현금 5만원(49만 중)을 지불하였다.

처리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 요청서를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계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 본회의 요구에 협박성 폭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통화 중 끊어버리는 영업행태를 보여 이와 유사한 민원건이 3명이나 접수되었고 계약금을 모두 5만원씩 받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 위 건으로 접수된 소비자들에게 모두 청약철회 조치 및 환불처리를 하였다.

조립이 안되는 다국적 수입 완구

내용 이성환(대전시 서구 갈마동) 씨는 선물로 W마트에서 레고코리아의 비소락제품을 구입했다. 조립시 5페이지 4번 그림의 부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니 단순히 해당 제품에만 부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 교환을 위해서 박스에 부품을 넣던 중 통 바깥쪽에 작은 글씨로 "5페이지 4번 그림이 잘못 되었으니 아래 그림 스티커를 붙여서 레고를 즐기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정작 그림 스티커는 들어 있지 않았다. 구입처에 직접 방문해 동종의 제품을

확인하니 모든 제품에 그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처리 레고 코리아사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층이 어린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글씨 크기와 색상 식별이 쉬운 표시를 하도록 시정 건의 하였으며 제품의 안내 스티커가 쉽게 탈착될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서를 안전하게 보관 유통되도록 건의하였고, 전국에 유통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제품을 회수해 스티커를 재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스티커를 배부하도록 처리하였다.

진공청소기 상품가액 구매계약과 틀리게 결제

내용 안경수(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씨는 2005년 1월 31일 방문 판매사원으로부터 로얄웨이미리 진공청소기를 상품가액 165만원에서 25만원 할인하여 140만원에 구매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5월 초에 카드금액을 조회하여 보니 165만원 전액이 다 인출되었다.

로얄웨이미리사에 전화로 이의제기 했더니 당시 영업사원과 개별처리 할 사안이라고 한다.

처리 소속회사의 영업사원과 계약했다고 해서 개별처리 해야할 사안이라면 방문판매원에 대한 불신감으로 어떤 소비자가 상품거래를 할 것인가 반문하고 부당성을 지적 사실조회 확인 후 25만원 전액 환불 조치토록 건의하여, 전액 환불 처리하여 주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 TM (Tele-Marketing) 보험 상술, 본인도 모르게 보험 가입돼 있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화를 통한 보험(이하 'TM보험'이라 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무심코 받은 전화 통화로 자기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황당해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본회는 'TM보험' 상술에 대해 알아보고, 그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00카드'입니다. 저희 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객님, 이용실적과 신용도가 좋아서 VIP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저희가 특별히 감사 차원에서 좋은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 ... VIP고객께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는 내용으로 TM보험 판매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전화를 매몰차게 끊자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판매원의 어려운 보험이야기를 들은 후 묻는 말에 대답만 한 후 자료를 보내주면 보험의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그 달치 카드고지서에 알지도 못하는 보험료가 청구된 것이다. 알아보니 몇 일전 'TM보험'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험

에 가입되어 있었다.

TM보험 '상술의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TM보험 상술로 인한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가입되어 있다.
- 소비자가 전화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상품이나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가입되어 있다.
- 약관이나 자필서명·계약 내용 확인서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명백한 가입 의사가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상담원들이 어려운 보험 내용을 빠르게 설명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보험 가입 처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조차 듣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M보험' 피해 예방법 ...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 전화로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전화 통화만 했으니까 가입이 되지 않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통화 시 동의하지 않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러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통화를 중단한다.
- TM 판매원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판매원의 이름·연락처를 기억했다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한다.
- 약관·증권·청약서 또는 전화 녹음 내용 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다- 통화 시 설명 받은 내용과 가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한다- 보험은 가입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통화 후 15일 내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제도를 이용한다-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거나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없거나 전화 녹음 내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

•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한다- 보험은 가입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TM보험'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 약관 교부 등 계약 내용 확인 절차 미흡, 보험사의 확인서 교부와 가입자의 자필 서명 수령 중요

TM보험이 전화로 가입이 이뤄지는 상품임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원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판매원의 설명 부족과 소비자의 이해 부족, 계약된 사실을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알거나 관련 서류를 청약철회기간 후에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하는 계약의 중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의 중요 내용을 알리는 제도인 확인서 교부와 자필서명 수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TM보험 판매 시 보험자가 소비자의 가입확정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관행이 확립돼야 하며 약관 및 계약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 즉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보험사는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을 청약일이나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계약서(청약서·확인서) 수령 시점으로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는 전화 통화 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소지자시대 05.6'에서 내용 참조 >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에 무방비

-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검출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심각성이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선진국에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초 어린이용 풍선에 든 유해물질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연이어 어린이 용품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검출돼 관련기관과 정부 모두가 어린이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본회에서도 최근 보도된 자료를 통해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함께 환경호르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저농도의 납에 노출되더라도 신경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 끼쳐

지난 5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및 어촌지역 학교 1개교씩 골라 설문조사와 건강검진, 중금속의 생체노출 정도 및 신경계 영향 등 다방면에 걸쳐 심층 조사를 벌였다.

평균 혈중 납 농도가 안전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공단지역 초등생의 경우 평균 납 농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외국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농도의 납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

우 신경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지능지수가 낮을 수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유아기의 납 노출은 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납 노출은 심한 곳은 중금속 오염원(광업이나 제련소가 있는 도시) 인근 거주지역과 납 성분이 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 오래된 집 및 주요 교통요지에 사는 아동들에게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안전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어린이 용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대거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정상

발육 저해와 생식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 불안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가 입는 옷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장난감과 놀이방 매트에서 DEHP가 다량으로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완구 및 어린이 용품에 6개 프탈레이트가소제(DEHP)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중 입에 넣어서 사용하는 치아발육기와 딸랑이 등에 대해서만 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은 친환경제품 개발 정부 당국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자는 유해물질 피해 최소화를 실천

성장기 어린이들이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옷을 입고 놀이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도 유해물질이 사회문제화되자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용품 유해성 사전검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유아무야 상태가 되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제품 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가, 제품 유해물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 부재로 어린이 용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 제정 마련에 정부 당국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고 기업은 친환경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는 나름대로 유해물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활 요령을 알아두도록 한다. 한국 소비자보호원과 관련 시민단체의 조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제공한다.

● 유해 물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수칙 ●

1. 놀이패드 뜨거운 스팀청소 하지말자-대부분의 놀이매트에 DEHP가 포함돼 있는데 표면코팅이 벗겨질 경우 환경호르몬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
2. 단순한 디자인 옷 골라 입자-디자인이 복잡한 옷일수록 섬유가공에 사용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새 옷을 구입하면 세탁한 후에 입자.
3. 플라스틱 장난감은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음료수 캔 내부 코팅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뜨거운 캔 음료는 피하자.
5. 방향제나 공기청정기보다는 하루에 5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6. 하루에 녹차 한잔 마시자-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체내 환경호르몬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7. 육류의 지방·생선의 껍질은 되도록 피하고,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다.



가전제품 사용의 지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기

1. 적정 냉방온도 준수는 에너지 절약과 냉방병 예방해줘요

냉방온도는 26℃~28℃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나지 않도록 유지한다.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설정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훨씬 시원하고 1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면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에어컨, 다리미, 전기렌지 등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여름철 전력문제는 전기사용이 일시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냉방이 집중되는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는 다리미, 전자렌지,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등 순간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3. 쓸데없이 켜둔 가전제품이 실내온도 더 높여요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를 켜두면 전기낭비는 물론이고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실내가 더욱 더워진다. 또한 할로겐램프나 백열등도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 사용은 자제한다.

4. 배터리 충전도 시간을 골라서 해주세요

노트북, 휴대용 CD 플레이어, 핸드폰 등의 충전은 가급적 전기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에 한다. 노트북은 오전이나 밤에 충전해서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오후시간대는 배터리로 사용한다.

5. 냉장고는 여름을 싫어해요

여름철에 냉장고 문을 너무 자주 여닫으면 냉기가 빠져나가고 실내등도 들어와 전력사용이 늘어난다. 또한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채우면 냉기순환이 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므로 냉장고 용량의 6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적당하다.

6. 대기전력을 차단해 주고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죠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통해 전력이 소모되므로, 쓰지 않는 가전기기의 플러그를 뽑는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 30~45%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작은 실천이 큰 물결이 되어

박상경 / 두정중학교 교사

십여 년만의 폭염이었다는 올해의 더위도 어느덧 고개를 숙이고 아침이면 가을의 내음이 물씬 나는 요즘이다.

우리 아파트 자전거 거치장,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 내 자전거를 꺼내며 나는 많은 이웃들을 만난다. 어느새 우리 아파트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나, "엄마! 경비아저씨가 우리 아파트에게 엄마가 제일 멋쟁이래요!"

얼마 전 출근하는 나를 궁금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시던 새로 오신 109동 경비아저씨, 우리 큰 딸로부터 전해 들으시고는 내 자전거에 기름까지 칠해 주셨단다. 물론 멋쟁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함축되었을 것이다.

우리 아파트도 한 가구에 자가용이 2대씩 있는 가정이 많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해지진 오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씩씩하게 자전거 페달을 밟은 아줌마가 특별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된다. 사실 걷기에 알맞은 거리이지만, 아직 어린 세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꾸려 가다보면 아침시간은 분초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자전거였다.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운행에 경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자전거로 20여분을 운동한다고 하자. 요즘 돈 들여 운동하는 우리 주부들과 비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탁월한 선택이고 실천이지 않은가?

더구나 2년간의 에너지 시범학교 운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 자신 무엇을 실천하였는지 되돌아보니 그래도 나의 대표적 실천사례는 자전거 통근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두정중학교에 몸담고 있는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실천하겠지만 나 자신도 어느 사이 생활 속에서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첫째, 아나바다 정신을 바탕으로 동료교사들의 자녀들과 서로 아이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혔다.

몇 년 동안 이어진 헌옷 물려받기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아껴 쓰고 물려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료 교사들과도 서로 생활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실천방법을 가정에서도 적용시켜 전기와 수도물 등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 실천하였다.

멀티탭 연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의 교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수도물 받아놓고 쓰기, 에어컨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고 선풍기를 함께 틀기, 다리미를 모아하기 등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이 너무 많이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가정에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다.

특히, 기특한 것은 이제 아직 어린 우리 세 아이들까지 각방 스위치에 엄마가 학교에서 가져온 절전 스티커를 붙여 놓고 근래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일 때가 많다.

오늘도 나는 눈부신 가을 햇살을 가르며 우리 두정 배움터로 씩씩하게 달린다. ■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

최근 '온라인 뱅킹' 이용이 겁난다고들 한다. 인터넷 뱅킹을 해킹해 수억원을 빼돌리는 신종 범죄 집단이 출현한데 이어, 전화로 돈을 이체하는 '텔레뱅킹'에서도 주인 모르게 거액이 빠져나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인 소비자가 은행측의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안전수칙을 고객인 소비자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하자.

전자금융거래 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전자금융거래란 무엇인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고 주로 자금이체, 송금 등 대금결제업무를 자동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네트워크화를 자동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네트워크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가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 이런 점이 좋다

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아주 적은 수수료가 적용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의 경우 객장을 통한 거래보다 빠른 매매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다.

■ 은행 전자 금융거래 시 유의할 점

① 거래처리 중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잔액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 등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② 폰뱅킹 서비스 신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번호 등록 후 일정기간(예:6개월간) 이체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은행창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③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가 예견되므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직접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 증권 전자금융거래 시 유의할 점

①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한다.

②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한다.

⑤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

⑥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는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대처방법으로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 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다.

■ 보험 전자금융거래 시 유의할 점

① 전자인증신청은 고객 본인이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거래 시 그 사이버몰이 정당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전자번호, 주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료 납입여부 및 책임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④ 대변접촉에 의한 안내가 없으므로 고객 본인의 상품 및 거래내용에 대해 철저히 확인 후 이용한다.

-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반드시 청약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1.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라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사에 통보하고 변경 조치를 취하라.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라
4. 공인인증서가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부득이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말라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라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 예컨대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고,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라
7. 전자금융거래 이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하라.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라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하라.

라며, 청약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틀린 경우 청약을 철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면 된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환경마크 부착된 친환경상품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하자

지난 6월 5일은 1972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무절제한 자원 개발과 낭비로 인하여 자원고갈, 수질과 대기 오염, 생물의 멸종과 삼림 지역의 감소 등의 환경문제가 등장한 지 벌써 33년째로 현재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에 본회는 환경의 달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제품 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혜와 생활 습관을 가져보자.

환경마크제도란?

- 상품의 친환경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환경마크(표지) 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

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KELA)가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해,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과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인증 제품 홍보 사업 등

을 담당하고 있다.

왜 환경마크 제품을 써야하나?

환경마크가 부착된 친환경제품은 우리를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존의 환경마크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자원과 에너지를 덜 사용해 경제적이었다.

최근 환경마크가 새로 개정됐는데 기존의 특징들과 함께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소재를 알려주고 있다. 재활용이 된 제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사용 등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감소시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환경마크는 제조부터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을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및 고품질을 고려한 제품에만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마크협회(KELA)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인 만큼 소비자가 환경마크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마크가 부착돼 있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친환경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궁금한 소비자들은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를 방문해 환경마크인증 제품을 알아본다. 환경마크협회는 매달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공지하고 있다. ■

< 생활 속의 환경마크 제품 >

대상제품	인증사유 및 제품의 특징	선정업체
비누	폐식용유 100% 재활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푸른누리(주), 살림원(주), 와이앤케이(주) 외 5개 업체
주방용 세제	천연원료를 사용, 순비누분과 생분해도가 우수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살림원(주), 다래월드(주)
세탁용 세제	천연계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수질 오염 유발을 줄임	애경산업(주), 엘지생활건강(주)
화장지	폐지활용,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표백제와 형광증백제 사용안함	동방제지(주), 설임제지공업(주), 유한김벌리(주), 삼정펄프(주) 외 29개 업체
세탁기	물 사용량이 적음, 세탁용제절전기능 채용으로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 물의 오염 적음	대우일렉트로닉스(주)의 마이더스
공기청정기	저소음, 오존 방출량 저감, 친환경 설계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불박이형 목재 제품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적음, 목질 재료의 표면에 PP시트 사용, 폐목재 사용	리바트(주), 한샘(주), 에넥스(주)
침구류	유해물질 함량이 낮음	영신물산(주), 동진침장(주), 예코웍스

소득공제대상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공제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 ①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 포함 ('04.1.1~)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 ②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③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

기본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100만원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에 문의해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 국세청)

머리 좋아지는 비결

세계일보 5월 30일자에 미국의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가 소개한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소개했다.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은 10살 이전의 아이 뿐 아니라 뇌 퇴화가 시작된다는 40세 이상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당한 숙면과 적절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 습관 등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해보자.

1. 생각을 위한 음식물 ●●● 뇌는 가장 탐욕스런 신체 조직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뇌 활동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아침식사를 건너서는 안 된다. 많은 연구 결과는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일 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침으로는 콩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점심으로는 계란이 들어간 오믈렛이나 샐러드가 좋다. 저녁엔 딸기 등 과일을 먹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2. 모차르트 효과 ●●● 음악이 생각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식이다. 주의할 점은 너무 크게 듣지 않는 것.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한 교수는 10년 전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이 수학적·공간적 추리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피아노 교습을 보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음악교육을 받은 6세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지수가 2~3점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 직업에 충실하라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우 기본적인 뇌 기능은 일에 의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 ‘일 기억’은 뇌의 단기 정보 저장 시스템이라 부를 만하다. 즉 당신이 어떠한 이성적 추론의 답을 구할 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일 기억이 당신의 전체 지능이 답을 구할 때까지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4. 긍정적인 피드백 ●●●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상상보다 쉽다. 생각을 통제하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통제하나. 쉽다. 런던의 의대생을 조사한 결과 공부만 하는 이들보다는 오페라와 공연을 관람한 의대생들이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 줬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끊임없이 사회와 피드백을 나누고 사람들과 대화하라. 그것이 당신의 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5. 숙면 ●●● 뭘니뭘니해도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좋다. 잠을 잘 못 자면 기획력, 문제해결 능력, 학습 집중도, 기억, 경계 능력 등 모든 것에서 큰 타격을 받는다.

6. 운동은 지능도 높여줘 ●●● 운동하면 뇌 활동도 증진된다. 1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학습능력과 집중력이 15% 좋아지며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크다.

7. 수녀들의 지침 ●●● 수녀들은 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을까. 캔터기대학의 치매 전문가 데이비드 스노던은 수녀들이 적당한 활동, 긍정적 태도, 필수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 등으로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두가 수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악을 생각지 말고, 행하지 말며 듣지 말라”는 금언은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

8. 문제는 주의력 ●●● 당신은 똑똑할 수도 있고 이해도도 빠르며 창조적이고 아는 것도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력이 약하면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된다. 주의력을 모으고 정신을 산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9. 지능지수는 애초의 능력? 아니 방법! ●●● 한 강당에 600명이 모여 있다고 하자. 각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간다. 한 시간 뒤 당신은 그 사람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기억해낸다. 왜냐하면 이는 지능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는 기술과 집중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기억할 때 항상 당신과 관계 있는 사물이나 감정과 연관시켜 기억하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지능은 향상될 수 있다.

차창 밖 손 내밀다 다치면 본인 책임 40%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7월 강모(31)씨는 친구가 모는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차창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승합차가 서울 내부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다른 자동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친구가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었고, 마침 강씨가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으로 오른쪽 팔을 내밀었다 방음벽에 부딪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는 강씨가 승합차가 가입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5. 23〉

예금금리 더 준다고 덥석 가입마세요

최근 시중은행들이 여러 개의 금융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교차판매(cross-sell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으로서 1명의 고객에게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팔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충동 구매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교차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주가지수연동예금 판매는 일반 예금보다 20배 가량 더 많은, 판매금액의 1.5% 안팎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기예금에 약간의 우대금리를 얹어 주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끼용 우대금리에 현혹돼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구매 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은행이 직원에게 목표를 할당하는 식의 판매는 곤란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도록 직원 교육

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5. 24〉

잠자는 예금 쉽게 찾는다

사전통지 전면 실시 예금주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휴면예금 유무를 은행들이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를 전면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지 비용을 예금주가 부담하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예금으로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자체 수익으로 귀속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휴면예금 여부를 통지하라고 은행들에 당부했지만 예금주의 주소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 한국씨티, 대구,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휴

면예금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고려할 때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 사전 통지제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5. 26〉

택시·하수도·경유에 우편요금까지 내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택시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에 줄줄이 인상된다. 7월부터 경유값도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요금을 각각 17.52% 인상한다.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최초 2km)은 16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르고,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주·울산도 택시 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요금을 성인 700원에서 800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외에 하수도요금을 8월부터 평균 35% 올리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시도 7월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9월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8.1%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 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수가를 조정해 하반기에 자동차 보험료를 3~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다음 달 전문기관의 용역 작업이 끝나면 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5. 31〉

신종 카드사기 피해 속출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한 뒤 카드를 받아 돈을 빼내가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김강현 은행·비은행분쟁조정팀장은 15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신용 카드

사기 피해를 둘러싸고 카드사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통신업체 협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으로 가입해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면 요금할인 및 단말기 무상지급 등 혜택을 준다”고 속인 후 회원 가입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철저하게 대면방식으로만 결제계좌를 바꾸려는 은행계 카드와 달리 ARS로도 결제계좌 방식을 변경해주는 삼성과 LG 등 전문카드사를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전문 카드사의 경우 관련 피해 사례가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팀장은 “우선 결제계좌를 ARS방식으로 바꾸도록 카드사에 권고했다”면서 “카드사가 합의를 통해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50~80%를 변제키로 했지만 사고를 당한 이도 부당한 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6. 16〉

국내 라면들, 나트륨 과다 “너무 짜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라면에 포함된 나트륨이 국내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포함돼 있어 짠 맛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인 기관에 의뢰, 최근 3년간 식품공업협회 통계상 국내 판매순위 10위권에 들었던 라면 11개 제품의 나트륨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넘어섰다.

나트륨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왕뚜껑’ (한국야쿠르트)으로 면발에 610mg, 스프에 2,110mg이 포함돼 WHO가 제시한 1일 섭취 기준치(1,968mg·성인 기준)의 138%로 분석됐다. 이어 ‘짜라면 큰사발’ (이하 농심)이 2,620mg으로 WHO 기준치 대비 133%였고 ‘채우탕 큰 사발’이 2,350mg(119%), ‘안성탕면’이 2,320mg(118%) 순이었다. ‘짜파게티’ (이하 농심)와 ‘짜라면 컵’, ‘육개장 사발면’은 1,150~1,780mg으로 WHO 기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라면 11개 제품 모두 국내 기준치 3,500mg에는 못 미쳤다.

선진국의 나트륨 1일 섭취 기준치는 미국이 2,400mg(FDA·미 식품의약국), 영국이 1,600mg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식약청 영양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3,500mg로 정해져 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먹으면 고혈압과 심장병·혈관질환·위염·골격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계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나트륨 500mg 정도만 섭취하면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측은 “짠 음식이 많은 우리 식단의 특성상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데다 우리나라 라면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5. 19〉

“미국산 GM 옥수수 인체 有害 우려”

유전자조작(GM) 옥수수를 먹인 쥐의 몸에 이상이 발견돼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가 입수해 이날 폭로한 미국 GMO 기업 몬산토의 1139쪽짜리 비밀보고서에 따르

면 ‘MON863’이라는 GM 옥수수를 섭취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콩팥이 작고 혈액 성분에도 변이가 생겼다. 하지만 일반 옥수수를 먹은 다른 쥐에서는 건강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몬산토 측에 연구서 전문의 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론자들은 GM 감자를 먹은 쥐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지적한 7년 전의 연구가 다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몬산토 측은 이 같은 차이가 “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차일 뿐”이라며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지난 한 해 350만 t 가량의 GMO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5. 23〉

대형할인점서 중국산 저가김치 판매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 할인점이 중국 김치 판매에 적극 나서 김치관련 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할인점의 중국산 김치판매로 김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는 가뜩이나 취약해진 국내 김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농

민단체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2위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33개 매장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를 PB(자사 브랜드) 상품으로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 중국 칭다오(靑島)의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에 ‘알뜰포기김치’라는 상표를 붙여 국산 김치의 40~50% 가격에 팔고 있다. 이 김치는 판매를 시작한지 10여일 만에 홈플러스 전체 김치 매출액의 8%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할인점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중국산 김치판매에 성공을 거둘 경우, 중국산 김치가 전 할인점 업계로 급속히 번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점의 중국산 김치 판매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배추 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배추재배 농가는 물론 무, 고추, 마늘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393t에 불과하던 중국산 김치 수입물량은 2002년 1051t, 2003년 2만 8700t, 2004

년 7만2600t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중국김치가 국내 최대의 유통망인 할인점까지 점령할 경우 중국김치 수입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최근 1사1촌 운동을 통해 도농상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할인점의 중국산 김치 판매는 이런 상생 분위기를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5. 26〉

“과즙우유 개선하겠다”

과즙우유 등 유제품의 당도가 과다하고 제품명이 과장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따라 각 제조사들이 개선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중·장기적으로 품질 보증, 기술연구소, 마케팅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제품의 당도를 낮추거나 새 제품 출시 때 낮은 당도를 적용키로 했다.

빙그레도 그동안 어린이들의 우유 기피와 고당도 선호 추세에 맞춰 제품들을 내놓다보니 소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자정 노력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특히 ‘신선한 딸

기과즙 광광 넣은 우유’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품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빙그레 관계자는 “고당도 제품 등은 소비자 선호 등 ‘눈높이’를 맞춘 마케팅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우유 속의 유당과 일반 과당을 합친 당도를 놓고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비원의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매일유업도 앞으로 과즙우유의 우유 함유량을 기존 60~7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고 당도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일유업 연구소는 불가피하게 첨가해야 하는 당분의 경우 몸에 좋은 올리고당 등 기능성 당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매일유업 한도문 이사는 “어린이들이 우유보다는 달짝지근한 것들을 찾는 점 때문에 우유를 적게 넣고 당도를 높여온 게 사실”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 속 진짜 딸기과즙 듬뿍’ 등의 과즙우유로 소비원의 지적을 받은 남양유업도 국민 정부와 동떨어진 광고 등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6. 10〉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 법원 “일당 6만5천734원이 적정” 첫 산정

가사노동의 노동가치는 단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주부 김모(41)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주부의 노동을 일반 노동자와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있었지만 주부의 노동가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처음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요리, 세탁, 육아, 자녀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주부를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보통인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업무성격상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 김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1일 6만5천734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통상 주부의 노동가치는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2003년 상반기 1일 5만58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김씨는 남편이 몰던 차를 타고 2003년 1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앞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은 소형 승합차와 부딪쳐 부상, 보험사 D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1억2천여만원의 손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6. 7)

여성 직장인 10명중 7명 “자기계발”

여성 직장인 10명중 7명은 ‘공부하는 직장인’을 의미하는 셀러던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포털 우먼잡링크(womanjob link.co.kr)가 여성직장인 581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4%(403명)가 ‘그렇다’고 답해 셀러던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드러냈다.

이들의 ‘자기계발 방법’으로는 ‘외국어 학원 수강’이 45.4%(183명)로 가장 많았고, ‘MBA 등 대학원 준비’가 22.8%(92명)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 공부’가 17.6%(71명)였고, ‘각종 인터넷 강좌 수강’이 10%(40명)를 차

지했다. ‘기타’ 응답은 4.2%(17명)이었다.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으로는 가장 많은 33.7%(136명)가 ‘퇴근 후 저녁시간’을 꼽아 여성 직장인들 가운데 ‘저녁형 인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시간 이용’은 27.5%(111명)로 뒤를 이었고, ‘출근 전 새벽시간’도 21.8%(88명)로 높게 나타났다. ‘점심시간’은 10.2%(41명)였고 ‘근무시간’은 6.7%(27명)에 그쳤다.

“자기계발을 하는 목적”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4%(211명)가 ‘이직 혹은 승진을 위해’라고 응답했다. <우먼타임스 6. 8>

유방암 자가진단장치 나온다.

손에 들고 유방을 비춰보는 것만으로 초기 유방암을 탐지할 수 있는 자가진단장치가 개발돼 1~2년 안에 상용화할 전망이다. 헬스데이 뉴스가 9일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방사선·생화학부 브리튼 쉐스 박사가 개발해 ‘아이파인드’ (iFind)라는 이름을 붙인 이 유방암 자가진단장치는 카드 한 벌만한 크기로 근적외선을 이용해 유방 여러 곳의 혈류량을 측정해 암세포 유무를 알아낸다. 암세포는 영양공급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혈류량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1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44명의 유방암 환자를 찾아내 96%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고 쉐스 박사는 밝혔다.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이 장치는 조영 결과를 칩에 기록하게 된다. 정상조직과 암조직 간의 혈중 산소 비율 차이를 포착해 그 차이가 일정선을 넘어서면 이를 발광 또는 경고음을 통해 알려준다. <세계일보. 6. 10>

여성·가족정책 총괄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영유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가족정책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일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기본법을 이관받아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가족정책이 추가됨에 따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등으로 가족정책국이 신설돼 가족정책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위기가족과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자녀 양육 지원, 가족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 개발, 모부자 가정과 미혼모 지원,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의 날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또한 보육정책 강화로 보육정책국에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할 보육재정과가 생기고, 대외협력관이 신설돼 국내외 여성과 가족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업무를 맡는다.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을 평가할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6. 14>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A병원 으로 향하는 내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많이 피곤하였다. 입원실은 2인 용이었고 R은 병실에 있지 않았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여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 여자 의사 만나러 간다고 갔어요” 한다.

얼마 후, 긴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고개 숙이고 들어온 R은 나를 보더니 씩 웃는다. 어이없는 건 내 편이건만 R이 그런 표정을 짓는다.

“웬 환자복인 거야? 느닷없이—?”

R은 침대에 기대앉고 나는 그녀를 마주하여 빈 의자에 앉았다.

“곧장 후회했어요. 선생님께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미간을 찌푸리고 R은 창 밖으로 눈길을 던진다.

“전화가 문제인 거야? 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전화 온 장소가 문제이지?”

R과는 서로 사는 곳이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녀가 일주일 전쯤 나를 찾은 건, 장미정원을 보러가자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장미정원은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 안에 있다.

R은 별달리 말이 없지도 않았고 어딘가가 아픈 사람 같지도 않았었다. 그냥 보통 때 그대로였었다. 내가 둔감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상시와 다른 김새라곤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꽃잎이 흐늘흐늘 떨어지기 시작한 여러 종류의 장미꽃들의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우리는 여름 저녁의 느릿하고 달콤한 산책을 하였다. 잡다한 모든 일로부터 숙제 같은 의무와 늘상 쫓기는 강박관념을 털어 내고 순연한 휴식을 즐겼다고 할까.

굳이 이상한 점을 찾으려면 R이 저녁을 먹을 때, 와인을 먹자고 한 정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녀와 만날 때면 가끔씩 있는 일이었으므로 별달리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생님은 사는 게 행복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잠깐 동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 혼자인 R이 자기는 절대 독신을 부르짖는 결혼 해방론자는 아니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크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뭘까?”

아니나 다를까, 단박 R은 반격을 가한다.

“시시해요. 선생님은 좀 사고의 방식이 개혁적일 줄 알았는데, 실망, 실망!”

“용기 문제야. 난 정말이지 나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너무 긴 세월을 망설이기만 하다가 너무도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아 깜짝 놀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처럼 선생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신 건가요?”

“난 애달픈 사랑문제가 아니야. 내가 꼭 가서 머물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일 년 일 년 허비하며 결혼에 대한 의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니 하고 뒤로 물러선 걸 말하는 거야.”

“후회하시는군요?”

“아주 많이, 아니 몹시—”

“왜, 지금은 시도불가능인가요?”

“여전히 용기가 문제지. 나이도 건강 운운하는 것도 용기부족에서 오는 변명 같은 걸 테니까. 하지만 몰라. 어느 날 문득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듯이 집사처럼 훌훌 떠날 지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춘다는 분수를 향해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청회색 하늘엔 눈썹달이 그림처럼 떠 있었다.

R은 짧은 침묵을 깨고 말하였다.

—전 세계에서 수재들만 모인 하버드대 생들이 제일 많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세요? —아니.

—IQ가 낮은 박약아들은 우울증 같은 게 없다잖아요, 무의탁 양로원의 노인 대부분이 8, 90세 넘는 고령자들인 이유를 아세요?

—아니 몰라.

—경쟁의식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없지요. 즉 야망이 없다는 건, 최고점을 향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

나를 향해 R은 말을 잇는다.

“나는 현명하지 못했어요. 치열하지도 성실하지도—. 꿀벌은 꿀 한 근을 모으기 위해 적어도 꽃에서 꽃으로 2만 번을 날아야 한 대요. 곤충 중에 열심히 일하며 부지런한 개미는 자기 체중의 50배나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다고 해요—그런 데 나는, 그림을 그리러 모스크바까지 가서 눈 속에서 무얼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전시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캔버스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운전을 할 수도, 사람들이 무서워 밖에 나오지도 못 하겠구요. 그림을 그려도 되는 지나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결혼의 무덤 속으로 다시 추락해 볼까 싶기도 해요.”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 재능의 갈채를 포기하겠다고? 무의미한 잡념 버리고 부지런히 작업하라고, 도쿄 비엔날레에서 우뚝 서야지—.”

그 날 밤, 춤추는 분수는 한 시간 동안 환상적이었다. 내가 R을 전철역까지 배려해주었을 때, R은 와락 나를 포옹해 주었다. 그래도 나는 신에 추상화가로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R이 마음속에 허물 수 없는 허무의 집을 짓고 있는 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나는 A병원 신경정신과 닥터의 전화를 받았다. 자살을 기도한 R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가까운 지인인 나를 면담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오후, 나는 생의 오묘한 미로를 걸어가게 되었다. 나는 과연, 미궁에 빠진 테세우스 왕자를 구원하기 위해 실타래를 건네준 신화 속의 아리아드네 공주처럼, R이 우울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김녕희/소설가>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 1961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단편소설 <우기의 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장편소설 <행복의 빈 상자>(1975), <우리가 날개를 가졌을 때>(1992), <창밖의 사과나무>(2000)를 비롯해 창작집 <고독한 축제>(1968), <이브의 여로>(1995), 수필집 <내 영혼의 아침>(1978), 콩트집 <우리들의 이별>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한국소설문학상('87), 조연현문학상('89), 만우 박영준문학상('92), 국제펜문학상('00)을 수상했으며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색깔로 먹는다

- 옐로우푸드(Yellow Food) -

웰빙(참살이) 열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특정한 집단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 아니. 누구나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웰빙' 바람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건강이다.

오행론(五行論)의 원리에 따라 식품의 색깔이 우리 몸의 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부분이 허약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색깔 음식을

골라먹는 재미와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독소를 제거하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노화 방지와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져

노란색은 오행에서 토(土)에 속하며, 인체의 비(脾), 위(胃), 입 등과 연결돼 있어 신경계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소화력 증진과 함께 원활한 배설작용을 돕는 색깔이다.

음식의 색깔이 주목받는 이유는 색깔에 들어 있는 파이토케미컬 때문이라고 한다.

파이토케이컬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이며 항암효과가 있고, 특히 노란색 식품에는 파이토케미컬 중 가장 강한 질병 예방제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 있다. 카로티노이드 덕분에 노란색 식품은 항암효과를 비롯한 면역 체계를 가꾸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지닌 헤스페레틴이란 영양소

는 귤이나 레몬 등의 노란색 과일에 많이 들어 있어 매일 오렌지 주스를 한컵씩 마시면 심장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노란색 식품의 종류와 그 효과

단호박

면역력 증진시키고 비만 예방에 효과적



이다.

뛰어난 항산화제로 알려진 베타 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노화와 암을 예방해준다. 또한 이노와 해독 작용을 해 간이 안 좋고 냉한 체질인 사람에게 좋다.

질병 예방제인 카로티노이드 중 알파카로틴, 베타 카로틴과 루테인 등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식품

특히, 비위 기능을 도와 소화흡수를 원활히 해주고 양질의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해 원기를 보충해주고 비만 예방에도 탁월하다. 이런 효과 때문에 임신부나 여성에게 인기있는 식품 중 하나이다.

옥수수

항암효과와 이노작용에 탁월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비타민 E는 황산화제로 세포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곡식 중에는 밀과 옥수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노란색 식품인 옥수수는 위장과 신장을 좋게한다. 특히 옥수수 수염은 이노작용에 탁월하다.

귤과 망고

심장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



귤과 망고를 비롯해 노란 색깔의 과일에는 비타민 C와 A가 많으며 푸른 잎 채소와 거의 같은 양의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다.

하루에 귤 3개만 먹으면 심장질환에 효과적이라는 베타카로틴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귤이나 레몬, 라임 등에 풍부한 헤스페레틴이라는 영양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망고 속에는 항산화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암 형성을 억제하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다.

감자

날것으로 위가 비어 있을 때 먹는 것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



감자는 식이성 섬유 덩어리로 소화가 잘 되지 않지만 먹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가능해 다이어트식으로 단연 최고의 음식이다. 최근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민간요법에도 쓰인다.

감자 성분의 대부분이 녹말이지만 비타민, 과 판토텐산,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는 스트레스로 줄이고 감기에 대한 면역성을 증진시켜주고, 뇌의 작용을 돕는 비타민 B1이 많아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다.

감자 생즙에 들어 있는 '알기닌'은 위벽에 막을 만들어 위를 보호하고, 진정작용을 하는 '아트로핀'이 들어 있어 위·십이지장궤양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감자에는 세균과 발암물질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풍부하므로, 치료 목적으로 감자를 먹을 때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아침식사 전, 위가 비어 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한다. ■

삼복더위, 담백한 닭요리로 이겨내자

초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삼복더위를 대비한 보양식으로 삼계탕, 장어, 민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계탕 외에도 한방재료를 섞거나 과일을 넣어 담백한 닭요리를 만들 수 있다. 담백한 닭요리로 여름철 건강을 지키자.

●●● 감초닭죽 ●●●



재료> 닭다리 1개, 닭 가슴살 1쪽, 마늘 4쪽, 대파 ½대, 쌀 1컵, 물 6컵, 소금 약간, 검은깨 1큰술, 실파 2대, 참기름 2작은술

<만드는 방법>

- ① 닭다리와 닭 가슴살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
- ② 냄비에 물을 붓고 닭다리와 닭 가슴살, 마늘, 대파를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인다.
- ③ 닭다리와 닭 가슴살을 건져 살을 발라내고 대파와 마늘은 건져내고 국물은 따로 둔다.
- ④ 쌀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 커터에 넣고 쌀알이 약간 으깨지도록 갈아 냄비에 담고 닭 삶은 육수와 닭살을 넣어 고루 저어가며 끓인다.

- ⑤ 쌀알이 충분히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검은깨와 송송 썬 실파를 넣어 맛을 낸 다음 참기름을 넣는다.

●●● 구기자 닭볶음 ●●●

재료> 닭 2분의 1마리, 소금·후추 약간씩, 생강즙 1작은술, 맛술 2분의 1작은술, 간장 2작은술, 달걀 1개, 녹말가루 2큰술, 튀김 기름적량, 양념(대파 1대, 다진 마늘 2작은술, 홍고추 1개, 참기름 1작은술), 구기자 2큰술

<만드는 방법>

- ①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을 낸 후 핏물을 뺀다.
- ② 구기자는 깨끗이 비벼가며 씻어서 살짝



불린다.

- ③ ①의 닭에 소금, 후추, 물, 생강즙, 간장으로 밑간을 해 놓는다.
- ④ 대파는 송송 썰고 마늘, 고추는 곱게 다진다.
- ⑤ ③의 닭에 녹말을 문힌 후 달걀물을 문혀 튀김 기름에 속까지 익도록 바삭하게 튀긴다.
- ⑥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고추, 대파를 넣고 볶다가 향이 나면 구기자를 넣어 볶는다. 여기에 튀겨낸 닭을 넣어 재빨리 섞은 후 참기름으로 맛을 낸다.

●●● 과일 닭고기탕수 ●●●

재료> 닭살 200g, 생강즙 약간, 소금·후추 약간씩, 달걀 ½개, 녹말가루 6큰술, 튀김기름 적당량, 파인애플 1쪽, 귤 1개, 키위 1개, 탕수소스(포도주스 1컵, 설탕 3큰술, 식초 2큰술, 소금·녹말물 약간씩)

<만드는 방법>

- ① 닭살은 2×3cm 크기, 1cm 이하 두께로 썰어 생강즙,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 놓는다.
- ② 닭살에 분량의 달걀, 녹말가루를 넣고 버무려 170℃의 기름에 한 개씩 넣고 2번 정도 바삭하게 튀긴다.
- ③ 파인애플은 6등분하고, 귤과 키위는 껍질을 벗겨 알맞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 ④ 포도주스에 설탕, 식초, 소금을 넣고 끓을 때 녹말물을 넣어 탕수소스의 농도를 맞춘다.



- ⑤ 탕수소스에 닭살튀김과 준비해 놓은 과일을 넣고 버무려 담는다.
※ 파인애플주스, 사과주스, 당근주스, 오렌지주스 등 여러 가지 과일주스로도 탕수소스를 만들 수 있다.

●●● 닭고기카레튀김 ●●●

재료> 토막낸 닭 800g, 우유 1컵, 카레가루 1/3컵, 튀김가루 2 1/2컵, 달걀 1개

<만드는 방법>

- ① 닭은 먹기 좋게 5cm 크기로 잘라 말끔히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 ② ①의 닭에 우유를 부어 30분 정도 재두어 누린내를 없앤다.
- ③ ②에 재두었던 우유를 따라낸 다음 달걀과 섞고 카레가루, 튀김가루 1½컵을 섞어 주르륵 흐르는 정도로 반죽을 만든다.
- ④ ②의 닭에 튀김가루 1컵을 술술 뿌려 덧가루를 문힌 다음 ③에서 만든 튀김반죽을 넣고 다시 고루 버무린다. 중온으로 달군 기름에 닭 토막을 하나씩 넣고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뚜껑을 덮어 튀긴다. 토막이 큰 것은 튀기는 도중에 나무젓가락으로 속을 군데군데 찔러 튀기면 더 빨리 익는다.
- ⑤ 닭튀김은 한번 튀긴 다음 높은 온도에서 한번 더 튀긴다.



보험료 납부에서 체납까지 궁금증 풀어드려요

**❓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 은행이
... 쉽니다. 납부마감일도 연장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인한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첫째 근무일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분실하였습니다. 고지서 없
... 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은행창구에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뱅킹과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모르고 두 번 납부했는데 돌려받는 방
... 법이 있나요?**

보험료 등의 이중납부, 착오납부, 소급 자격 상실,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 등에 의해 가입자에게 돌려드려야 할 일체의 금액을 과오납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등 과오납환급금은 우편, 유선, 인터넷으로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으로 며칠 전 임금압류예정통보서가 송달
... 되었더군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직장 다
... 니지 않았을 때의 지역보험료가 일부 체납되었다고 해
... 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 임금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법적 근거는 무
... 었는지 알려주세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 당연적용(강제가입)제도이며,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는 가입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과요소(가입자 수, 재산, 소득 등)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대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의의 성실납부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함을 물론 보험재정안정을 위해서 국민 건강보험법 제 70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해 재산이나 임금압류 등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진행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문 차장>

북한의 민족명절 - 단오



북한이 6월 11일(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각종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음력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을 휴식일로 정하고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는 명절로 세고 있다. 1967년 5월 김일성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려 민속명절인 음력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을 모두 폐지해 버렸다. 조상에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복을 기리는 놀이나 관습을 봉건사회의 잔재로, 미신적인 요소로 여기며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상전래의 풍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노인층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제사와 성묘 등의 행사는 암암리에 계속돼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통제로 형식과 의미는 상당부분 변질됐다. 설에 세배를 하지 않고 제사 때 큰절을 하지 않는 대신 묵념을 한다든지 차례대신 김일성부자의 사진 앞에서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한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 1988년에 추석, 1989년에 음력설, 한식, 단오 등을 부활시켜 북한 주민들은 4대 민속명절을 모두 세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남북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방북이 점증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대내외 정세를 감안,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민속경기와 음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장려함에 따른 것이다.

단오날 민속경기로는 씨름, 줄다리기, 장기,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등이 진행된다. 모란봉 부근에 건설된 야외 씨름경기장에서는 대황소상 전국 근로자 텔레비전 민족씨름경기대회가 열린다.

평양에서는 이들 민속경기와 함께 음식품평회도 열려 쫄떡, 설기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오음식이 선보인다. 그러나 사실 일반주민들은 단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단오 풍습 또한 주민들에게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상전래의 명절 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당창건일 등 사회주의 명절을 더 중요시하는 북한사회의 특징 때문이다.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영국연인 홍잉 著, 김택규 譯 / 한길사



영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여류작가 홍잉의 소설 『영국연인』은 서양과 동양 또는 영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상호충돌과 이질성을 배경으로 한 연애소설이다. 주인공은 실존인물들로서,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실제 조카 줄리안 벨이 1930년대 중국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그곳 여류작가 린과 벌였던 격정적인 사랑과 좌절을 재구성하고 있다.

작품을 관류하는 시선은 의외로 낯설고 진기한 중국문화를 관찰하는 서양인 줄리안에게 맞춰져 있다. 홍잉의 출세작 『붉은 여자』와 더불어 출간된 이 작품을 통해 현행 중국 문단의 관심사와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한때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불륜'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안겨줄 것이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역사는 계속된다 조르주 뒤비 著, 백인호 외 譯 / 동문선



이 책은 프랑스의 중세사가 조르주 뒤비의 회고록이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엘리트 코스를 선택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가까운 리옹대학의 문과대 교수가 되었다. 이곳은 파리의 혼잡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평온과 시간적 여유, 기본적인 저작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후 아날학파의 추종자로서 40년에 걸쳐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하여 왕성한 지적 생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생활의 노출을 극도로 꺼렸는데 은퇴 직전 이 책을 써서 예술작품으로서 진정한 회고록이라 평가받았다. 집필의 목적은 후생들에게 역사연구를 권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었는데, 책의 절반을 학위논문 작성에 할애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주제의 선택, 지도 교수, 연구 작업, 사료 읽기 등의 항목 설정이 그 특징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 역사가가 자기 학문의 설계와 연구 과정에 대해 꼼꼼히 서술한 것을 읽어가노라면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역사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교양으로 읽을 만한 책이다. 〈추천위원 :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회화 이원복 著 / 숲



우리 나라의 옛 그림의 세계는 매력적이다. 거기에 우리는 자랑할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회화』라는 책은, 그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기 위한 좋은 가이드북이 된다.

첫째, 저자 이원복 선생의 설명이 쉬우면서도 자상하고 빠뜨림이나 왜곡이 적다. 둘째, 많은 사진 자료들이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흥미도 돕는다. 셋째, 1부에서는 우리 회화사를 통시적으로 설명, 안내하고, 2부에서는 대표적 그림 90점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하였다. 통론과 각론을 겸한 안내서이다. 넷째, 한국화의 종류와 표현방법에 대한 설명, 연표, 용어해설, 참고문헌 등이 책 뒷면에 붙어 있다. 한국화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그림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해설하는 많은 책 가운데서 『회화』는 가장 충실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위원 : 김갑수(문화평론가)〉

농가월령가 정학유 글, 김영호 엮음 / 꿈이 있는 세상



요즈음 아이들은 참 행복한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위한 좋은 책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 환경, 생태, 미술, 민속, 경제, 과학, 출판 전문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위해 기획한 교양 도서들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주고 있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이번에 나온 『농가월령가』도 그 중 하나이다.

농가월령가는 약 200년 전 조선 후기 현종 때 정약용 선생의 둘째 아들 정학유 선생이 당시 농민들을 위해 지은 노래이다. 월령이란 그 달 할 일을 적어놓은 행사표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사와 세시풍속, 놀이, 행사는 물론 철마다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과 명절 음식을 월별로 나누어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어울려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내용이 풍속화와 함께 정겹게 담겨 있고, 노래를 흥얼거리다보면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12달 24절기 노래 속에 담겨진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추천위원 : 김자연(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대자연 속의 조용한 호흡, 산사로가는길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 웰빙 문화체험을 선호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란 짧은 시간 동안 산사에서 생활하면서 절에서의 일상과 수행, 불교문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여 세속에 매어있던 마음을 스스로 경건하고 맑은 정신으로 만드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고즈넉한 산사(山寺) 가득 울려 퍼지는 지팡자랑 풍경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출가(出家) 여행을 떠나보자. 그 곳에 가면 세속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고성 건봉사 *



1500년 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강원도 고성군의 금강산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대찰로 이곳에서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찰 풍습과 스님들의 하루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다.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에 눈을 뜨면 산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소박한 자연의 소리와 바람결에 실려 오는 은은한 풍경소리를 들으며 어린 녹차 앞으로 만든 개운한 작설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고, 장중하면서도 이슬처럼 영롱하게 울리는 범종 소리는 가슴 속에 스며든다.

사명대사의 의기가 서린 건봉사 18기를 배워보고 참 '나'를 찾는 참선 시간에는 마음의 안정과 나도 모르던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또한 음식의 소중함과 불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발우공양은 산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이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날, 여유로운 휴식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리운 어느 날, '산사의 하루, 건봉사 템플스테이'는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한 색다른 감동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위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문의전화 : 033) 681- 5244

* 전북 금산사 *



금산사는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보듬은 모악산 품에 포근히 안겨 있는 사찰로서 백제 법왕 1년(599)에 창건되었고 산사에 올려 퍼지는 은은한 풍경소리는 현실의 온갖 망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청량한 세계에 젖어들게 해 하루를 머물러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학 트인 넓은 절 마당을 지나 작은 문을 들어서면, 대숲을 흐드는 바람소리와 개울물 소리가 도란거리는 금산사 산사 체험은 예불, 참선, 산행, 신행상당, 다도, 108배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며, 차밭 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차밭 체험 프로그램은 차나무 관리와 거름주기, 찻잎 따기와 덫기, 차 마시기, 그리고 적은 양이지만 직접 덕은 차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대중공양 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2박 3일 대부분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색.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문의전화 : 063) 548-4440~2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지부

부산지도자대회와 APEC 성공 다짐대회

시지부

지난 5월 9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전국주부 교실 부산지도자 대회 및 APEC 성공 다짐대회”를 주제로 부산지역의 주부 교실 회원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도자대회 행사에 임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이경훈 APEC 단장으로 부터 APEC의 의미와 일정에 대한 설명 및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 사항 등에 관한 특강을 듣고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영양제 가격 실태조사

시지부

5월 10일~12일까지 중구·사하구·서구·영도구를 대상으로 영양제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등 각종 영양제가 시판되고 있다.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가 세분화되어 그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국마다 가격 경쟁으로 인해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이름도 비슷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영양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건전한 판매질서 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모음전

시지부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5월 19일 시

지부에서는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모음전” 행사를 가졌다.

웰빙 시대에 맞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지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치공장방문

시지부

지난 5월 28일 부산시내에 위치한 김치공장을 방문해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김치가 시중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견학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광역시지부

대구 소단협 창립 기념 봉사

시지부

5월 25일 대구 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기념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수지침 부문을 맡아 봉사요원으로 5명의 회원이 범물사회복지관을 방문해 34명의 어르신들에게 수지침과 뜸을 통한 무료시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소비자 모니터 교육 수료식

시지부

시지부는 5월 27일 본회 건물 3층 도서관 1강좌실에서 지난 2개월간 소비자 모니터 교육을 받은 수강자 19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강자들은 소비자 불만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활동 및 생필품가격조사 등에 적극 참여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릴레이 사랑의 봉사활동

남동구지회, 서구지회, 부평구지회, 연수구지회, 계양구지회

남동구지회는 5월 18일 경노잔치에 회원 30명이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21일에는 회원 15명이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 살리기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서구지회는 18일 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마련한 합동결혼식에 회원 3명이 참석해 환경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랑신부에게 축하와 함께 결혼식장 도우미 봉사활동을 했다.

부평구지회는 26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회원 10명이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27일에는 관내 경로당에서 열린 노인잔치에 회원 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연수구지회는 5월 26일 연수구민의 날 음식바자회에 참여해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계양구지회는 관내 거주하는 독거 노인 10분에게 칠순잔치를 마련해 노년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바자회 참가와 드라마 촬영지 견학

시지부

지난 5월 5일 전남대학교에서 아름다운 가계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병아리떼

뽕뽕뽕’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자선 바자회에 전달하는 행사로 본 지회 회장이 광주 전남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6일에는 회원 45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KBS 광주방송이 후원하는 드라마 ‘해신’의 촬영지인 완도군을 찾아가 촬영장 견학과 함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KBS “사랑의 TV 보내기” 성금 모금에 동참

시지부

5월 19일 KBS 광주방송 분수대 앞에서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주관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TV 보내기” 성금 모금 운동에 본 지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대전광역시지부

‘2005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시지부

지난 5월 21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로데오 거리에서 '청소년 문화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가해 마술, 댄스, 사물놀이, 코스튬플레이, 현악 5중주 등의 공연과 애니메이션, 사진 등을 전시했다. 참가한 동아리 중 지족고등학교의 사물놀이 동아리인 '하울'이 교육감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제안회의- 유통업계의 CS(Customer Satisfaction)기구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시지부

지난 5월 26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소비자 제안회의를 가졌다. 유통업계가 대거 진출해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와 병행 진행하여 소비자 불만해소에 걸

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CS팀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통업계의 서비스 질 향상 방향'이란 제목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와 충남대학교 김영신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었으며, 한남대 이규현 교수, 대전광역시청의 성순례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울산광역시지부

2005년도 학습도우미 연수교육 실시

시지부

지난 5월 9~10일 교육계 종사자를 비롯한 회원 780여명이 현대아트홀에 모여 학습도우미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우수한 학부모의 인적자원을 학교 학습활동에 참여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와 함께 학습도우미로서의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돕고자했

다. 신한옥 장학관의 '학습도우미제의 운영', 박재동 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학습환경', 정영자 국장의 '가정의 행복은 여성이 만든다', 신직소 부장의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 강연으로 학습도우미로서의 학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그린여성자전거교실 수료증 수여식

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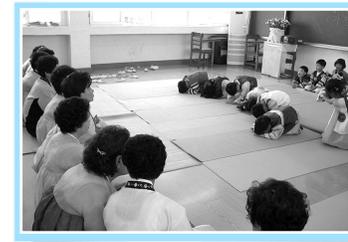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5월 17일 2개월간의 자전거 초급과정을 수료한 2, 3기 자전거 회원 40여명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로 중급반 과정으로 자전거 실습 및 동호회로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가정의 달 은빛사랑 교실 운영

시지부

지난달 실시했던 '은빛사랑과 함께하는 영양전 만들기'가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은빛사랑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유치원생이 함께 하는 예절교실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경단 및 요리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청소년 탐사대 탐사활동

시지부

5월 28일 회원 50명이 태화강에서 상·중·하류의 물 환경, 식생조사,



플랑크톤 조사 등 다양한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태화강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탐사대원과 시민들은 태화강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경기도지부

산업체 시찰

도지부

경기도지부와 수원시지회 회원 45명이 5월 25일 안양에 위치한 농심공장을 견학했다. 라면과 스낵류의 생산 기술과 제조과정을 보고, 제품에 대한 품질과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수원시지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란 주제로 수원시가 5월 20일

~21일 이틀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 수원시지회도 참가해 지역봉사자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홍보와 더불어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했다.

농촌 일손돕기

구리시지회

5월 20일 회원 20명이 구리시 사동동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배꽃 접붙이기를 하였다.

산업화로 공해가 심해져 꿀벌이 해야 할 자연적 수정을 인위적으로 배꽃에 수정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도우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알뜰 바자회' 행사

용인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5월 20일 회원 22명이 용인농협주차장에서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에 동참해 해물빈대떡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관내

위치한 양로원에 전달했다.



복지회관 중식제공 평택시지회

지난 5월 13일 회원 16명이 남부노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제공과 함께 주변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가전제품 이동순회 서비스'와 '제1회 예절교육' 실시 광명시지회

5월 23일~24일 이틀간 소하2동 개운아파트 앞에서 본회와 가전제품 3사(LG, 삼성, 대우)가 함께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 수익제공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했다.

25일에는 소하 2동 사무소에서 지역 통장님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예절교육을 실시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선조들의 정신과 지혜가 깃들여 있는 전통예절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 도리와 규범을 익혀 선진 시민으로서 수준 높은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05년도 2/4분기 소비자교육 실시 의정부지회

5월 24일 경기도지회와 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경기도 제2청사 강당에서 회원 28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제1강의 시간에는 김승호 수자원공사 관천권관리단장의 '물과 생활공간'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본회 중앙회 광정자 실장의 '소비자의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제2강의에서는 일반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합리적인 가



치판단을 내려 개인의 소비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와 동시에 경제사회에서 소비의 의의와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강원도지부

여성지도자 연수 참가 도지부

지난 5월 9일 두산리조트에서 '80만 강원여성 목소리 찾자'란 슬로건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종이학 접기를 실시해 그 전달식과 함께 강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불우이웃 돕기 도지부, 평창군지회

도지부 회원 15명이 지난 5월 3일 제철과일을 준비해 오순절 보육원을 찾

아가 부모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창군지회는 자원봉사 단체회원들과 함께한 환경정비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봉사활동과 더불어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사임당상 및 문예 경연 시상식 참석

강릉지회

한국 여성의 표상인 신사임당의 얼을 선양하는 제31회 신사임당상 및 제14회 문예경연대회 시상식이 5월 27일 강릉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회원들이 신사임당의 얼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충청북도지부

소비자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도지부

지난 5월 25일 여성회관(구)에서 회원 및 일반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방식 및 소비자의 알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및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및 NGO 단체 등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건전한 소비생활 캠페인

청주시지회

지난 5월 25일 청주시내에서 도지부와 함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피켓과 플래카드를 준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진천지회, 제천시지회

진천지회는 5월 25일 회원 4명이 초평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청소봉사활동과 선물을 전달하고 노년

의 쓸쓸함을 위로했다.

제천시지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5월 11일은 재가가정을 회원 6명이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13일에는 회원 25명이 성보나요양원을 방문해 삼계탕을 중식으로 대접하는 등 이웃의 참된 사랑을 몸소 실천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가족사랑 걷기대회

충주시지회

5월 7일 충주시 탄금대주변에서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가족봉괴현상이 심각해지는 오늘날, 가족과 함께 걸으며 대화와 정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대회였다.

충청남도지부

사교육 안정을 위한 간담회

도지부

지난 5월 3일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교육관계자와 학원연합회 회원 및 학부모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특별물가지수인 학원수강료 감시를 통한 사교육비 안정 사업을 본회인 대전·충남 물가감시센터에서 실시하여 타 도시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공주지역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사교육 안정을 도모했다.



**에너지절약 및 소비자교육
도지부**

지난 5월 25일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회원 150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함께 고유가 시대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알리고 그 해결책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노인 금융 및 방문판매 소비자교육
천안시지회**

5월 11일 신방동 복지회관에서 노

인 5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뒤통자강보조식품 방문판매 등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노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소비자 의식개혁과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
천안시지회**

본회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원의 엄기섭님으로부터 건전한 소비생활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품질 관리원 김상현님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GMO에 관한 교육 및 전시 홍보를 통



해 우리 농산물 사랑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후 사직동과 영성동 중앙시장에서 회원 50여명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전라북도지부

**알뜰시장 및 재활용품 교환 바자회
도지부**

5월 10일 한양예식장 앞 공터에서 '알뜰시장 및 재활용품 교환 바자회'를 열었다. 회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류·신문지·우유팩·현웃을 수집하고 무공해비누·페트병·먹거리를 준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및 우유팩·신문지는 화장지로 교환했다. 재활용품 사용과 함께 알뜰 구매로 자연보호와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거리질서 캠페인
도지부**

5월 16일과 23일 도지부 회원 10명이 전주 구한일은행 앞 사거리에서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였다.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차량 정지선 지키기와 신호등 지키기 등 거리환경개선과 함께 교통질서를 계도하였다.



봉사활동

군산시지회, 완주군지회, 무주군지회

군산시지회는 5월 18일 회원 13명의 관내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중식을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며 노년생활의 외로움을 위로해 드렸다.

완주군지회는 회원 16명이 5월 21일 ~ 31일까지 구이면 평촌리에 위치한 3000평의 복숭아 과수원을 방문하여 봉지싸기를 비롯해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무주군지회는 무주군예체문화원에서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300인분의 주먹밥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주먹밥 만들

기 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전라남도지부

**수자원 보호를 위한 물사랑 캠페인
도지부**

5월 20일 회원과 지역 관계자 및 주민 100여명이 모여 영암군여성회관~터미널~5일장~영암군청까지 물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후손에게 물려줄 생명자원인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현상으로 인한 물 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물사랑 실천에 동참할 것을 유도했다.



**전남 쌀 판촉 및 평생고객확보사업
도지부**

영암군여성회관에서 지난 5월 20일 회원 및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쌀 홍보와 판촉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미질이 좋은 전남 쌀 구입기회를 제공하여 평생 고객확함으로써 전남 쌀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도지부**

5월 26일 광양 시내 거리에서 회원 50명이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타기 생활화 캠페인에 현수막과 피켓,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서명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후 오후 2시에는 여성회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의 필요성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독서는 기회다」 교양강좌
영암군지회**

최병래 영암군교육장이 '독서는 기



회다'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책을 통한 공통소재가 가족 간 공감대 형성에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담양군지회, 함평군지회

담양군지회는 회원 30명이 대나무 축제 기간인 5월 1일~5일까지 방문객들에게 무료 음료를 나누어 주고 지역 문화재 해설 등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함평군지회는 지난 4월 30일~5월 8일까지 열린 '나비축제 도우미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서 방문객들에게 무료 음료 제공 및 관광명소 안내 도우미 활동 등을 실시했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의류, 생활필수품, 식료품 등을 구입해 군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전달하였다.

경상북도지부

사랑의 부부 합동 결혼식

문경시지회

지난 5월 11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에서 문경시가 주최하는 '사랑의 부부 합동 결혼식' 행사에 축의금 전달

과 함께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신랑신부들의 미래에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봉사활동 전개

포항시지회, 군위군지회, 울진군지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5월 24일 포항시 주관으로 운영했던 '행복한 가게'에 의류와 가전제품 및 서적 기증을 하고 판매 행사시 회원들이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군위군지회는 지난 21일 행락철을 맞아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행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에 회원 전원이 참여해 쓰레



기, 오물수거 등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울진군지회는 5월 12일 근남 엑스포공원에서 7월 22일부터 25일간 치러질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 엑스포' 준비행사에 회원들이 참여해 공원 주변 풀 뽑기 및 환경정화작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남도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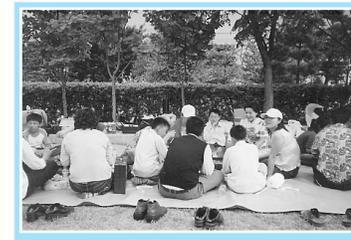
제10기 알뜰주부 시상식 창원시지회

생활의 지혜로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알뜰주부를 위한 시상식이 지난 4월 25일 창원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있었으며, 5월 11일 코아 뷔페 6층 연회실에서는 05년 알뜰주부상을 수상한 제10기 지도위원을 위한 환영식이 있었다.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 밀양시지회

지난 5월 2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밀양 시청 정문 잔디밭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밀양 아리랑대축제 나들이를 겸해 의류를 선물하고, 점심 식사와 다과시간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 격려했다.



자원봉사활동

산청군지회

지난 4월 회원 15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군내 위치한 복음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중풍으로 수족을 쓸 수 없는 분들에게 목욕 및 안마를 해드리는 봉사활동과 함께 말벗이 되어드렸다.



또한 지난 5월 5일에는 회원 20명이 한방 약초축제 행사장에서 안내 및 식수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산청군은 민족의 의성(醫聖) 허준과 그의 스승인 신의(神醫) 류의대 선생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의술을 펼친 곳으로, 이번 축제는 시기를 달리하여 피어나는 자생약초와 한의학의 신비한 효능을 체험하고 토속한방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제주도지부

제4회 주부교실 한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

도지부

지난 5월 12일 한라대학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음악을 통한 아름다운 화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제4회 한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제주도민 400여명이 참석하여 제주



도여성지체장애인협회 문클라라씨의 시낭송과 함께 제주 콘서트콰이어의 특별연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라축제' 개최

도지부

제주농초등학교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도지부는 '자연사랑, 문화사랑, 아이사랑'이란 주제로 5월 26일 사라봉일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라축제를 개최했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사라봉 낙조를 감상하고, 시 낭송 시간과 지역 유산인 사라오름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이런 행사를 통해 주부교실이 봉사단체로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어린이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 동 정 ●

중앙회는 지난 6월 1일(수) 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고품질 쌀의 소비기반 구축과 함께 외국산 쌀의 국내시판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부교실게시판

효율적인 주택 물 관리와 수질 향상을 위한 제안회의

현재 수도당국에서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증가시키고 정수기술의 발전과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를 위한 연구와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수질보전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 마련과 주민 실천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회의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005. 7. 5(화) 10:30 ~ 12:00
- 장소 : 본회 4층 강당
- 문의 : 02)2265-3627~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들의 사례들을 접수 받고 있다.

- 전 화 : (02)2273-2485, 6300, (02)2265-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100-015)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7월 프로그램 안내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이T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 다음과 같은 강좌를 새롭게 운영한다. (문의: 3409 - 1948~9)

강좌명	교육내용	기간 및 강의시간	수강료
컴퓨터 교실			
엑셀기초 (중급)	스프레드시트이용 수식(공식)을 통하여, 한번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과 표를 이용해서 간결하고 보기 쉬운 문서 작성	7. 4(3주간) 월~금 10:00~12:00	5만원 (교재비별도)
포토샵강좌	포토샵을 이용해 홈페이지 만들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기능과 미니홈피에 올리는 방법	7. 11(2주간) 월~금 15:00~16:30	3만원 (교재비별도)
단기직종프로그램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아기를 돌보기 위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습까지(산모도우미 교육과정)	7. 11~7. 22 월~금 09:00~13:30	무료강좌
재직자 수강 지원금프로그램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환급80~100%)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55종류 실기시험 대비 실습	63.27~8.24 월,수,금 19:00~22:00	30만원 (80%환급) 일반과정 20만원

● 특 강 ●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 간	수 강 료
여름음식(주)	7.11~7.15	5일	월,수 14:00~16:00 화,목,금 10:00~12:00	일5천원(재료비 별도)
여름음식(주)	7.11~7.15	5일	월~금 19:00~21:00	일5천원(재료비 별도)
레게머리(아동)	7.20	1일	수 10:00~12:00	5천원(교재비 별도)
네일아트	7.15	1일	금 10:00~12:00	5천원(재료비 별도)
페티큐어	7.22	1일	금 10:00~12:00	5천원(재료비 별도)
코바늘뜨기	7.4~7.8	1일	월~금 10:00~12:00	4만5천원(재료비포함)
비지공예	7.12	1일	화 12:00~13:20	1만5천원(재료비포함)